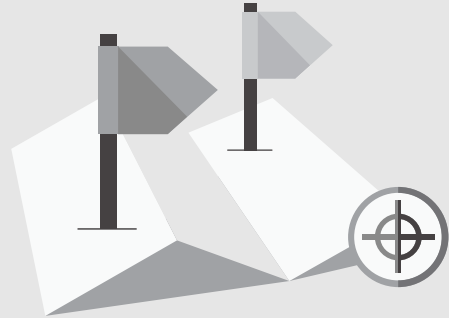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서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장인수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조성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선영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년 주기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만 4,538명이었고, 배우자와 애인 및 파트너가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1%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1-070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에 게재된 원고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¹⁾

Childbearing Characteristic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장인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저출산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2000년대 중반

부터 두드러지게 관측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으로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출생아 수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사회 다각적으로 추진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1) 이 글은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제5장 임신과 출산 경험'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로 한 정책 대응은 인구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에 대한 과정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종훈, 우해봉, 2018). 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적기 대응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사후적 대응 정책의 특성을 띠고 있는 한국 사회 인구 정책의 한계점(우해봉, 2018)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할 것이다.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위 명확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관측과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간과한 출산 행동을 더 심층적으로 관측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응 간의 유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상기 목적에 따라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 및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출산 행동이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생애주기 내 사건(event)이 아닐 수 있으며 동시에 결혼 제도 외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하고자 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목적(박종서 외, 2021)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출산 행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임신, 출산 경험(보고서 내 5장 참조) 관련 조사의 대상은, 이전 조사에서 기혼 여성만을 조사함으로써 노정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혼과 미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출산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전 조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바, 먼저 결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19~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신과 출산 행동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전 연도(2015, 2018년도)와 비교 가능한 19~49세 기혼 여성으로 한정된 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한다.²⁾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 및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2021년도 임신과 출산 행동 관련 주요 조사 결과

가. 임신 및 출산 경험

1) 임신 결과

먼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의 임신 결과를 살펴 보았다. 이들 19~49세 여성의 평균 임신 횟수와 평균 출생 횟수는 각각 2.11회, 1.7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임신 중인 경우를 제외한 평균 총임신 횟수에서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

2) 이러한 구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조사 대상 설정에 기인한 것이다.

연유산, 인공임신증지를 제외한 임신 결과(출생)의 비율인 임신유지율은 평균 87.4%로 도출되었다. 임신유지율은 이것이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증지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띠고 있는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함과 동시에 사산 및 자연유산, 인공임신증지와 같은 요인이 연령, 교육 수준, 초혼 연령 등과 같은 주요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분포 특성을 보이는지 간명하게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하였다. 대체로 여성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총임신 횟

수 및 출생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가임 기간과 연령 간 정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19~29세 연령층은 인공임신증지 평균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인에 따라 이들 연령층의 평균 임신유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른 예측변수들과의 조합을 바탕으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평균 임신유지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표 1. 19~49세 여성의 임신 결과

(단위: 회, %, 명)

구분	총임신 횟수 평균	현재 임신	임신 결과 평균 횟수					평균 임신 유지율	전체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임신 증지		
전체	2.11	0.04	1.71	0.01	0.00	0.25	0.11	87.4	4,194
연령									
19~29세	1.62	0.18	1.18	0.00	-	0.14	0.12	87.9	267
30~34세	1.66	0.11	1.35	0.01	-	0.17	0.03	89.8	582
35~39세	2.02	0.03	1.68	0.01	-	0.21	0.09	89.4	962
40~44세	2.27	0.00	1.83	0.00	-	0.29	0.14	86.1	1,137
45~49세	2.34	-	1.89	0.01	0.00	0.29	0.14	86.1	1,246
교육									
고졸 이하	2.31	0.02	1.82	0.01	0.00	0.27	0.20	84.8	1,398
대졸	2.01	0.04	1.66	0.01	-	0.23	0.08	88.8	2,571
대학원졸	1.91	0.05	1.54	0.01	-	0.27	0.04	89.1	225
초혼 연령									
24세 이하	2.52	0.03	2.04	0.01	0.00	0.24	0.21	87.0	782
25~29세	2.14	0.03	1.78	0.01	-	0.22	0.10	89.1	1,990
30~34세	1.89	0.05	1.50	0.00	-	0.27	0.06	87.2	1,114
35세 이상	1.69	0.03	1.22	0.00	-	0.35	0.09	82.4	287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3) 임신 결과 평균 횟수 내 '출생과 사산 동시' 범주는 다태아(쌍생아)의 임신 결과에서 출생, 사산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를 의미함.

4) 평균 임신유지율은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 횟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 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142 (표 5-3)의 일부를 제시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총임신 횟수가 1.91회로 고졸 이하나 대졸에 비하여 낮은 동시에 인공임신중지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기인한다. 또한 초혼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출생 횟수와 평균 총임신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신유지율은 35세 이상

범주가 8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혼 연령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범주에 비하여 평균 자연유산 횟수가 많은 데 기인한다.

2) 출생아 수

다음으로,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를 살펴

표 2.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평균	
전체	33.5	23.0	35.1	8.4	6,068	100.0	1.20
연령($\chi^2=2.9e+03^{***}$)							
19~29세	83.5	11.5	4.3	0.8	1,401	100.0	0.23
30~34세	44.3	31.0	21.0	3.8	947	100.0	0.85
35~39세	17.9	30.3	42.2	9.6	1,139	100.0	1.45
40~44세	10.4	23.8	53.4	12.5	1,242	100.0	1.70
45~49세	8.2	22.6	54.3	15.0	1,337	100.0	1.79
교육($\chi^2=163.3^{****}$)							
고졸 이하	24.3	23.8	38.4	13.5	1,782	100.0	1.44
대졸	37.8	22.2	33.7	6.4	3,976	100.0	1.09
대학원졸	30.9	29.8	34.6	4.7	309	100.0	1.13
혼인 상태($\chi^2=695.5^{***}$)							
미혼	99.6	0.4	0.0	0.0	1,438	100.0	0.00
기혼	12.9	30.0	46.0	11.1	4,630	100.0	1.57
가구소득($\chi^2=504.6^{***}$)							
60% 미만	57.0	21.3	16.2	5.6	1,063	100.0	0.72
60~80% 미만	27.2	27.2	37.3	8.3	912	100.0	1.28
80~100% 미만	26.6	25.4	38.6	9.4	1,017	100.0	1.32
100~120% 미만	26.5	23.8	41.0	8.8	981	100.0	1.33
120~140% 미만	29.2	19.6	39.6	11.7	623	100.0	1.35
140~160% 미만	32.8	19.9	37.9	9.3	502	100.0	1.25
160% 이상	33.5	21.5	39.7	7.8	970	100.0	1.25

주: 1) 가구소득은 3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 p<0.05, ** p<0.01, *** p<0.001

5)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152 (표 5-8)의 일부를 제시함.

보았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분석 대상인 19~4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범주별로 살펴보면 0명 33.5%, 1명 23.0%, 2명 35.1%, 3명 이상 8.4%인 것으로 나타나, 두 명 이상을 출산한 비율이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대상 네 명 중 한 명은 평균 1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 0명, 1명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3명 이상 범주는 비중이 낮아졌다(13.5%→6.4%→4.7%). 이러한 관측 결과는 교육 수준과 출산율 간 부적(-)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여러 관련 사례의 논의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 수 1명 범주는 그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출생아 수 2명 범주는 대체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측 결과에 대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출생아 수 3명 이상 범주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출산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출산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적 측면을 제고할 여력이 많아 실제로 출생아 수를 늘리지는 않을 개연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다

양한 예측변수 결합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자녀 계획

다음으로 자녀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임신 및 출산 경험과 달리 결혼 당시 자녀 계획은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19~49세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추가) 출산 계획 및 임신을 위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경험과 의향에 대한 사항은 결혼 경험과 무관하게 19~49세 모든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박종서 외(202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가족 구성 및 임신, 출산을 포함한 여러 생애주기의 사건이 개인의 결정이며, 자기 결정권을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이 절에서는 자녀 출산 계획과 자녀 출산과 관련된 부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항, 현재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냉동 정자·난자 경험에 대해 살펴본다.

1) 출산 계획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19~49세 모든 개인의 결혼 당시 출산 계획에 대한 주요 관측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결혼 당시의 출산 계획이 실제 출산을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 요인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출산 계획과 출산 이행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

표 3.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여부, 계획 자녀 수 평균[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전체		계획 자녀 수 평균
전체	80.3	19.7	8,096	100.0	1.93
교육($\chi^2=43.8^{***}$)					
고졸 이하	75.9	24.1	2,362	100.0	1.99
대졸	82.1	17.9	5,204	100.0	1.9
대학원졸	82.2	17.8	530	100.0	1.98
가구소득($\chi^2=94.3^{***}$)					
60% 미만	68.8	31.2	891	100.0	1.97
60~80% 미만	81.4	18.6	1,304	100.0	1.95
80~100% 미만	80.7	19.3	1,546	100.0	1.92
100~120% 미만	82.3	17.7	1,484	100.0	1.92
120~140% 미만	81.9	18.1	883	100.0	1.92
140~160% 미만	82.2	17.8	691	100.0	1.95
160% 이상	82.1	17.9	1,297	100.0	1.9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154 (표 5-10)의 일부를 제시함.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관측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고졸 이하 범주와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인 중위소득 60% 미만은 자녀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5.9%, 68.8%로 가장 낮았다. 이들이 실제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으로 인해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녀 출산 관련 부부의 의견 반영

다음으로 살펴본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

견 반영 사항은 출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출산 영향 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련 사례에서 다소 간과되어 온 부부간 의사 결정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고려하였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 정도는 자녀 출산 여부, 자녀 출산 시기, 자녀 수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상기 세 범주가 자녀 출산 이행의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특성 외에 자녀 출산 이후의 양육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 범주 공통적으로 파트너보다는 응답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표 4.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견 반영 정도

(단위: %, 명)

구분	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주로 상대방이	전체	
자녀 출산 여부	3.9	4.8	86.7	3.4	1.3	8,096	100.0
자녀 출산 시기	4.2	6.5	83.4	4.5	1.5	8,096	100.0
자녀 수	4.0	6.1	84.3	4.3	1.3	8,096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p. 157-159 (표 5-11)~(표 5-13)의 일부를 제시함.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나와 상대방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기 세 범주 중 자녀 출산 여부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본인과 파트너가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범주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의 실효성이 부각되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방향이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부부 구성원의 여건 및 상황(직업 특성,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3)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추가) 출산

표 5.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미 하였다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비해당(폐경 등)	전체	
전체	0.7	8.1	90.6	0.6	14,149	100.0
혼인 상태($\chi^2=682.1$)						
미혼	0.1	14.4	85.5	0.1	6,049	100.0
기혼	1.2	3.5	94.4	0.9	8,099	100.0
출생아 수($\chi^2=539.0^{***}$)						
0명	0.7	10.7	88.5	0.2	10,112	100.0
1명	2.1	3.0	93.4	1.5	1,396	100.0
2명	0.4	1.1	97.1	1.4	2,129	100.0
3명 이상	0.1	0.4	97.3	2.3	511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166 (표 5-16)의 일부를 제시함.

의향에 대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신규로 고려한 조사 항목이다.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보다는 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0.6% > 8.1%). 혼인 상태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미혼이 기혼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14.4% > 3.5%), 이는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즉, 기혼에 비하여 미혼은 만혼 경향에 따라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과 무관하게 출생아 수가 1명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없는(0명) 집단에서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바, 이러한 결과는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이 아직 출산하지 않은 이들의 출산 의향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전 연도 조사와 2021년도 임신과 출산 행동 관련 주요 조사의 결과 비교: 기혼 여성³⁾

가. 임신 횟수

임신 횟수와 관련하여 19~49세 기혼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2015년, 2018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지난 조사에 비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임신 횟수 0, 1회 범주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임신 횟수 2회 이상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횟수 0회에 대한 각 연도별 비율은 2015년 4.4%, 2018년 4.8%, 2021년 9.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임신 횟수 1회도 2015년 18.8%, 2018년 21.3%, 2021년 26.2%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의 범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바, 이는 평균 임신 횟수가 2015년 2.3회, 2018년 2.2회, 2021년 1.9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향과

표 6.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평균	
2015년	4.4	18.8	41.2	21.8	9.9	3.9	11,009	100.0	2.3
2018년	4.8	21.3	41.2	21.3	8.0	3.5	11,207	100.0	2.2
2021년	9.9	26.2	39.2	16.8	5.5	2.4	4,630	100.0	1.9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433 (부표 5-1)의 일부를 제시함.

3) 2015,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2021년도 조사는 15~18세 연령의 기혼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차이점이 있으나, 경험적으로 해당 범주의 표본 수가 적음을 상기하여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7.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방법

(단위: %, 명, 회)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2015년	자연 임신	98.5	99.2	99.4	99.6	100.0	100.0	100.0
	난임 시술	1.5	0.8	0.6	0.4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22	8,455	3,925	1,520	428	102	30
2018년	자연 임신	97.8	98.6	98.9	98.7	99.2	98.8	97
	난임 시술	2.2	1.4	1.1	1.3	0.8	1.2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1	8,289	7,537	1,284	387	90	30
2021년	자연 임신	96.5	97.5	97.8	97.6	99.0	99.1	97.9
	난임 시술	3.5	2.5	2.2	2.4	1.0	0.9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72	2,959	1,144	365	110	35	1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1)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정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434 <부표 5-2>.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임신 방법

2015, 2018년 조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19~49세 기혼 여성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임신 순위별 임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 임신 비율이 난임 시술 비율에 비하여 모든 범주에서 크게 높은 특성이 관측되었지만, 연도별로 볼 때 대체로 각 임신 순위별 범주에서 자연 임신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난임 시술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난임 시술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향은 만

년에 따른 기혼 여성의 임신 연령 증가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이들이 난임 시술을 경험하였고 이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임신 결과

다음으로 19~49세 기혼 여성 중 임신 경험이 있는 이들의 임신 결과에 대하여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18년에 비하여 2021년 출생 횟수와 평균 총임신 횟수는 각각 0.01회, 0.07회 감소한 반면, 평균 임신유지율은 약 2%포인트 증가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표 8. 기혼 여성(19~49세)의 임신 결과

(단위: %, 명, 회)

구분	총임신 횟수 평균	현재 임신	임신 결과 평균 횟수					평균 임신 유지율	전체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유산	인공임신 중지		
2018년	2.18	0.03	1.72	0.00	0.00	0.27	0.16	85.7	11,207
2021년	2.11	0.03	1.71	0.00	0.00	0.25	0.11	87.7	4,17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임신 결과 평균 횟수 내 '출생과 사산 동시' 범주는 다태(쌍생아)의 임신 결과에서 출생, 사산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를 의미함.
 3) 평균 임신유지율은 각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 횟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 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435 (부표 5-3)의 일부를 제시함.

평균 임신유지율의 증가 양상은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지와 같은 임신 결과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총 임신 횟수와 출산 횟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출생 이외의 결과가 감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임신유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출생아 수

19~49세 기혼 여성의 출생아 수는 2015년,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출생아 수 0명, 1명 범

주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생아 수 2명, 3명 이상의 범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출생아 수가 0명인 범주는 2015년 7.1%, 2018년 6.9%, 2021년 12.9%, 출생아 수가 1명인 범주에서는 2015년 24.4%, 2018년 26.4%, 2021년 3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아 수 2명 범주는 2015년 55.9%, 2018년 53.3%, 2021년 46.0%, 출생아 수 3명 이상 범주는 12.6%→13.4%→1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출생아 수는 1.57명으로 2015년, 2018년

표 9. 기혼 여성(19~49세)의 출생아 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평균
2015년	7.1	24.4	55.9	12.6	11,009	1.75
2018년	6.9	26.4	53.3	13.4	11,207	1.75
2021년	12.9	30.0	46.0	11.1	4,630	1.57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 442 (부표 5-8)의 일부를 제시함.

의 1.75명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 19~49세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5, 2018년도 조사와의 종단적 비교를 위하여 분석 대상을 19~49세 기혼 여성으로 한정된 주요 결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범주별 관측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신 결과와 관련하여 인공임신중지 평균 횟수가 평균 임신유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지와 같은 요인과 임신유지율 간 연관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측변수를 조합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출생아 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출생아 수 3명 이상의 범주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출산의 양적·질적 측면과 가구소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여건 간 연관성은 정적(+) 내지 부정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구소득 수준과 출생아 수 간 정적(+) 연관성이 있는 집단은 어떠한 이들인지, 반대로 부정적(-) 연관성이 있는 이들은 어떠한 특성을 띠는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반영은 출산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항목으로서 의미가 있는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반영하였다. 조사 결과는 나와 상대방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본인 및 상대방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에 비하여 크게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향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 정책 방향이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부부 구성원의 여건 및 상황(직업 특성,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추가) 출산 의향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또 다른 조사 문항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반영하였다. 관련 조사 결과는 부정적 응답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에 비하여 미혼은 만혼 경향에 따라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려는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예측변수와 조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내 임신과 출산 관련 주요 조사 결과는 출산 행동이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종훈, 우해봉. (2018). 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8).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 41(2), 31-59.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ildbearing Characteristic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nsu Cha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aimed at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y by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bearing behavior using the data of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Our results of analysis imply that there are many questions, regarding inequality, rearing of children, and late marriage,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a multifaceted manner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at is, we need a more complex analysis of childbearing and its various factors in low-fertility policy responses.